

# 도시 가구의 주거 과밀 지각과 주거 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 Residential Crowding and Adoption Behavior of the Urban Household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문 숙 재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Moon, Sook Jae.*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이 경 희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hung Ang University*

*Assistant Prof.; Rhee, Kyung Hee.*

### — 목 차 —

- |                       |                      |
|-----------------------|----------------------|
| I. 서 론                | Ⅲ. 연구 모형의 구성 및 연구 문제 |
| Ⅱ. 이론적 배경             | Ⅳ. 연구 방법             |
| 1. 과밀의 개념             | Ⅴ. 연구 결과 및 분석        |
| 2. 과밀에 관한 일반 이론       | Ⅵ. 결 론               |
| 3.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 참고 문헌                |
| 4. 주거 적응 행동           |                      |

### = ABSTRACT =

In recent years, conceptualizations of the residential crowding phenomena have developed from deterministic approaches to functionalistic ones which emphasize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personal variables. The influences of each variables which are believed to mediate the crowding perception have been tested.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of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sidential setting and previous residential experience with the residential crowding. Furthermore, the residential adoption behavior in response to the crowding phenomena is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are as follows :

1)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residential crowding are the residential setting variables such as the floor space and the measure of persons

per room. Als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family structure influence the residential crowding. No previous residential experience effects were found.

2) The residential adoption behavior is influenced by sex,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Female and the age group of 20s and 30s tend to prefer such alternatives as moving or residential alterations and additions. On the other hand, male and the age group of 40s and 50s tend to prefer staying without any alternatives or structural family adoption. The group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tend to show higher preference to moving and alterations, and the lower ones tend to stay or take the alternative of the structural family adoption. Years of education and the family structure do not influence the residential adoption behavior.

## I. 서 론

주거 환경은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 체계내에서 가정 환경, 미시 환경 또는 인위적 환경의 범주에 속하며, 주거 환경의 질은 생활의 질을 예시하는 지표들중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숙재, 소연경, 1983, 이기영, 1984). 한편 주거 공간은 주거 환경의 질을 측정할때 중요한 측면들중의 하나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가 시작된 이래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내에서의 주거 과밀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내의 가구들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들의 과밀 주거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통제와 조절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적인 환경의 지대한 영향력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에 대한 반증으로 환경결정론 (Environmental determinism) 적인 시각에서 시도되었다 (Rapoport, 1975). 이러한 접근방법은 전통적 접근방법 (Conventional approach) 또는 구조적인 관점 (Constructive viewpoint) 으로도 일컬어 지는데,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모든 자극이 유기체의 외적 환경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자극들은 인간의 지각 현상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Bell, 1978). 도시 지역의 과밀 주거가 인간의 질병, 또는 사회적 병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초기의 연구들과 1960년대 초 동물의 과밀 연구등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한 성과로서 과밀한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일련의 정보를 제시

하고 있다 (Edney, 1977). 한편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Functionalistic approach) 또는 생태학적인 관점 (Ecological viewpoint) 에서 인간의 환경 지각 행동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유기체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적 물리적 환경 사이의 상호 적응을 의미한다 (Bell, 1978). 즉 생태학적인 모형에서는 환경과 인간을 같은 척도에서 다루며 각각의 영향은 상호 관계로 이해되고 제반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조절행동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통합적인 연구 방법은 가정관리 행동 연구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생태학적 접근 방법과도 그 근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을 목적 지향적인 개방적 체계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거시적인 환경내의 하위체계로서 이해한다면, 그들이 부족한 주거 공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조절 행동을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체계적, 생태학적 접근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 가구가 그들의 환경적인 조건, 즉 가정의 입지 조건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응 행동을 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째, 부족한 공간 자원에 대한 인지, 즉 과밀지각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어떠한 요인들이 과밀 지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며, 셋째, 도시의 가구들은 이러한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거 적응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과밀의 개념

이제까지 경험적인 연구에서 과밀 현상을 논의할 때 과밀과 밀도의 개념은 구분되지 않고 혼돈되어 이해되어 왔는데, 이는 즉 고밀도 (High-density) 와 과밀 (Crowding)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Stokols, 1972), 이 두가지의 개념이 경험적인 연구에서 과연 어떻게 조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은 각각 상이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개념의 의미를 각각 파악해보면, 주거 고밀도란 물리적인 개념으로 주어인 공간에 대한 사용인 수, 또는 1인당 사용 면적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주거 밀도는 광범위한 지리적 특정 영역내에서의 사람 수, 주거수로 표시되는 외부밀도와 주거 단위내에서의 밀도인 방당 거주인 수, 주거당 거주인 수로 표시되는 내부밀도로 구분되기도 한다 (Holahan, 1982). 이러한 물리적 주거 밀도는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택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주거 만족도 측정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차성란, 1985, 홍성희, 1984).

한편 과밀 현상을 주관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개인이 지각한 공간 욕구가 이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과밀 개념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Holahan (1982)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그는 과밀을 긴장요소 (Stressor situation) 와 긴장 현상 (Stress syndrom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긴장요소라 함은 과밀을 환경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한 집단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내며, 인간에게 과밀을 느끼게 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밀을 긴장 현상으로 인식하는 측면은 특정 환경 요소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경험으로 보며, 이는 즉 긴장요소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eedman(1975)은 이 두가지 관점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한 바, 객관적 물리적 환경으로서 고밀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과밀 인지에 대한 연구, 즉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가상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게 되며, 객관적 환경이나 이에 대한 반응

에 대해서는 경시하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반면 Proshansky (1976), Stokols (1972) 등의 일련의 연구자들은 인지적인 과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객관적인 주거 밀도에 관한 연구는 인간이 공간을 사용할 때 인간의 심리적 반응이나 역동적인 인간의 경험에 관하여 다루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과밀과 촛점을 맞추는 연구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밀도의 영향을 어떻게 증대하는가를 나타내고 과밀 현상을 공간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한 동기적 상태 (Motivation) 로 간주함으로써 행동 반응으로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종합적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과밀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주관적 과밀 지각에 더욱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okols (1972) 와 Proshansky (1976) 등이 그들의 경험적 연구에서 받아들이는 과밀의 개념을 따르고자 하며, 즉 과밀이란 개인의 사회적, 공간적 욕구가 이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주관적 경험으로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

### 2. 과밀에 대한 일반 이론

인간의 공간 사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과밀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으며, 과밀 지각을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소로 보는 통합적인 연구들에 있어서도 각기 상이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과밀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과잉 자극 이론 (Stimulus Overload Theory)

인간이 과밀한 상태에 있을 경우 정보 또는 자극의 과잉 투입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행동 반응, 또는 임무 수행에 방해받게 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Milgram (1970)에 의해 도시 거주자들의 과밀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과잉인구, 고밀도, 집단의 다양성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시 생활에 대한 Louis Wirth (1938)의 사회학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발전시킨 이론으로, 도시 생활에서의 과잉 정보의 투입은 개인의 적응 능력을 초과하게 되며 이에 따르는 부정적 적응 행동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모형에서 Desor (1972)는 과밀 현상을 사회적 요인들에 의한 과잉 자극으

로 설명하였으며, Rapoport(1976)도 과밀 현상을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감각적인 지나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즉 이러한 과잉자극 이론은 고밀도 상태에서 자극의 강도와 양이 증가되어 이를 경험할때 과밀 지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이에 대한 적응 방법으로는 신체적, 심리적인 위축 또는 건축적인 방해물의 설치등으로 나타난다.

### 2) 행동 제한 이론(Behavioral Constraint Theory)

행동의 제한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이 모형에서는 고밀도 상황을 자극으로 보며, 이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서 인식된다. 특히 행동의 제한적인 요소는 행동 선택의 제한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행동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Proshansky(1976)은 과밀의 중요한 심리적 영향을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과밀 현상은 특정 공간내의 사람의 수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심리적인 상태이며, 과밀 경험은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해 원하는 행동을 성취할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표현된다. Altman(1980)은 한 개인이 원하는 프라이버시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영역성 및 개인 공간과 과밀 관계를 연관시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프라이버시를 조절하는 행동 기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과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잡한 경계를 설정하게 되고 이는 언어, 표정, 개인적공간, 영역성을 나타내는 행동들에 의해서 성취된다.

행동의 방해 요인으로 과밀을 인식하는 모형에 있어서는, 과밀 현상은 특히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있어서 더욱 과도의 긴장을 유발시키며,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의 접근을 방해하고, 특히 목표 지향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적 비용 즉 시간, 노력, 에너지의 소모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Holahan, 1982). Stokols(1972)는 이와 같은 행동 제한 모형을 심리적인 저항 모형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는 과밀 현상에 의해 행동의 제한을 인지하게 되면 심리적 저항을 가져오며 침해당한 행동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 유발의 상태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즉 과밀에 의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 당할 경우 행동적, 인지적, 지각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하게 되며, 구체적인 행동 반응으로 물리적 환경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생태학적인 모형

이상에서 논의된 과잉 자극 이론과 행동 제한 모형은 과밀 현상에 대하여 심리적인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사회적인 조절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Micklin (1973)이 제시한 생태학적 모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즉 첫째,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연구의 단위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통합과 조직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며, 셋째, 생태학적인 개념은 물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사용과 분배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자원의 분배가 충분할 경우 밀도 자체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Rohe (1982)의 부분적인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즉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고밀도의 유희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행동이 공격적이며 협동성의 저하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고밀도가 놀이 기구에 대한 경쟁을 높여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켰음을 제시한다.

Wicker(1971)는 생태학적 모형을 기초로 Overmaning 이론을 확립시켰는데, 그는 사람 수를 상황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서 적응 수준을 파악하는 일련의 경험적 연구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특정 상황에 따라 최초 유지 수준과 최대 수용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적정 밀도 수준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결국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과밀로서 인식되며 부정적인 행동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과밀에 대한 일반 이론은 각기 다른 물리적 상황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주거 과밀을 설명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론의 적용이 적합한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밝히기 곤란하다. 그러나 위의 세 이론들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밀 현상은 결국 정보의 과잉, 과잉자극, 긴장유발, 심리적 저항등의 현상에 의한 복합적이며 다원적인 심리적 경험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실제로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tokols (1976)은 각기 다른 물리적 환경은 각각이 요구하는 적정 밀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1차 환경, 2차 환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차 환경은 개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다양한 개인 활동에 종사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2차 환경은 접촉이 일시적이며 익

명성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1차 환경에 비해 중요시 되지 않는 환경을 뜻한다. 1차 환경의 과밀 현상은 개인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거 환경은 1차 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arlin 팀(1979)은 과밀의 분류에 유용한 5개의 원형적 환경, 즉 작업환경, 대중교통 환경, 상점 및 음식점, 공공장소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 각 환경에서 주요한 잠재적 긴장요소들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거 과밀 현상은 자원의 부족과 혼잡, 대인적 상호 관계에 대한 통제와 결핍을 의미하며, 즉 과도한 사회적 자극과 적합한 공간의 부족,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결여로 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방해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인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 3.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주거 과밀 현상을 주관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모형에 있어서는 개인의 과밀 지각 현상을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과밀 지각은 일정 수준의 밀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개인의 특성 또는 상황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을 기초로 주거 과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적 변인

공간의 크기, 공간의 구획 방법, 공간의 형태 등은 개인의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거의 규모 또는 조작적인 변인으로서 방당 거주인 수는 특히 과밀 지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Aiello(1982)는 규모가 같은 공간에서 방의 수를 조절하였을 때 규모보다는 방의 수가 과밀 지각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공간의 형태와 구획 방법에 따른 과밀 지각은 Desor(1972)의 유사 연구 방법(Simulation research method)에 의하여 증명되었는데 그는 방의 규모를 일정하게 통제한 후 방의 구획과 형태를 변형시켜 이에 따른 과밀 지각 정도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즉 구획된 방은 구획되지 않은 방보다 과밀 지각 수준 정도가 낮으며 직사각형의 방보다 정사각형의 방의 형태는 더욱 과밀 지각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용한 공간 자원의 크기와 함께 공간의 형태나 구획 방법 등도 과밀 지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인구 사회적 변인

과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인구 사회적 요인은 문화적 규범, 거주자 집단의 결속과 동질성, 성별, 가족 생활 주기의 단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적 배경에 따른 과밀 지각의 차이는 Altman(1980), Hall(1966) 등에 의해 밝혀졌으며, Netherlands와 HongKong 지역의 과밀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들 지역이 객관적인 주거 밀도가 높은 곳임에 비추어 과밀 지각이나 이에 따른 병리 현상은 낮게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각기 다른 문화권내에서 주거 공간에 대한 욕구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Cassel, 1972). 거주자간의 결속과 유사성이 과밀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Aiello 팀(1982)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가족의 구성, 가치관의 동질성 또는 생활 양식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Glove 팀, 1979). 성별에 따른 과밀 지각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Freedman(1975)은 고밀도 상황에서 여성은 과밀 지각을 덜 경험하게 되는데 반하여, 남성은 공격적 행동 또는 분노 등의 감정을 더 빈번히 느끼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Aiello(1982)의 기숙사 방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과밀 지각 현상 비교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한편 Desor(1972)는 그의 유사 연구 모형에서 성별의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즉 과밀 지각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측정 도구 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의 Life Cycle의 변화는 주거 욕구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주거의 규모와 필요한 방 수를 증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Morris 팀(1978) McAuley 팀(1982) 등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성장기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과밀 지각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Booth, 1976).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Cassel(1972)은 그의 연구에서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속한 집단은 과밀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지속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양적인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개인적 변인

주거 과밀 지각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으로는 개인의 주거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전의 고밀도에 대한 경험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 또는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고밀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행동 기제의 표현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Helson의 적응 수준 이론 (Adaptation level theory)에서 적절히 설명되고 있다. 즉 개인은 특정 자극에 대하여 일정 수준에서 적응하게 되며 인지된 자극에 평가는 내면화된 개인의 준거 수준과의 차이에 의거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Wohlwill, 1972). 또한 개인적인 인성(personality)의 차이도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내향적 또는 외향적인 성격은 그들이 공간을 지각하는데 차이를 보이고 (Melson, 1980) 특히 내향적인 사람은 고밀도 상황에 대하여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Bell, 1978).

위에서 제시한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들은 과밀 지각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파악되었으나 상이한 연구의 대상, 또는 특정 상황하에서 각각 연구가 행해졌으므로 그 상대적인 설명력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주거 공간에 대한 과밀 지각 정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인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주거 적응 행동

주거 적응 행동은 주거 만족의 현저한 저하로 인한 규범적 결함을 느끼게 될 때 일어난다 (Seek, 1983). 이러한 결함이 인지되고 주거의 특정 상황에 연계되어 있을 경우, 가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로 볼 때 미래의 주거와 관련된 행동 계획을 위한 태도나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 즉 가족은 현재의 주거 수준과 주거 열망 수준을 감안하여 주거 규범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Morris 팀, 1978).

일반적으로 적응의 의미는 광의적으로는 유기적 체계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 수행하는 모든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으로부터의 미세한 자극을 처리하는 단순한 행동으로부터 주요한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는 복잡한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Holahan, 1982). 이러한 관점에서 유기적인 조직체들은 적응 행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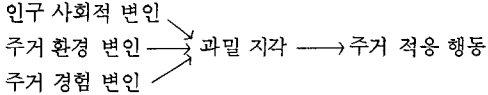
한편 적응과 조절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적응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고 조절이란 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는 의미로 인식 되기도 한다 (Bell, 1978). Stokols (1972)은 과밀 지각 현상을 인지된 과밀 상태의 제한 조건들을 변형시키려는 동기적 상태로 설명하고 특정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수정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물리적 환경이 변경될 수 있다면 유용한 공간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며, 그러한 행동이 불가능하면 덜 과밀한 장소로 이동하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조절 방법이 불가능하면 지각적, 인지적 방법으로 각 개인의 요구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거 적응 행동에 관한 통합적인 모형은 Morris 팀 (1978)에 의해 제시되었다. 주거 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규범, 가족의 규범, 물리적 주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 모형에서 강조되었으며, 주거 조절을 위한 동기적인 요인으로는 주거 불만족 또는 주거 결함등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주거 과밀 현상은 주거 결함 인지의 한 측면으로서 주거 조절 동기 요소로서 이해 될 수 있다.

Morris 팀 (1977)은 주거 적응 행동을 주거 적응과 주거 조절의 두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주거 적응에는 가족의 주거 적응 수준의 조절이나 가족의 구조적 조절, 즉 가족의 내적인 조절 방법을 포함시켰다. 한편 주거 조절 행동에는 주택의 개조 또는 증축을 통한 방법을 택하거나 주거 이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실제로 인지된 주거 결함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적응 행동을 택할 것인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의 권위 또는 구조적 체계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조절 행동을 수행하는 데는 제한 조건들이 따르게 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 조건들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작용함이 지적되었다 (Morris, 1978). 주거 과밀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제까지 부분적인 소수의 연구 (최상림, 1984)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Ⅲ. 연구 모형의 구성 및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가구의 주거 과밀 지각 현상을 사회 인구조 변인들과 주거 환경 변인, 주거 경험 변인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총체적인 심리적 평가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과밀 지각은 적응 행동의 동기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

정하였다.



위의 연구 모형에서 인구 사회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의 동질성, 가족의 생활 주기, 가구주의 직업, 교육 정도, 소득의 변인들을 포함시키고, 주거 환경 변인으로는 현재 주택의 유형, 규모, 방당 거주인 수, 소유 관계와 거주 기간을, 그리고 주거 경험 변인으로는 이전 주택의 유형, 규모, 소유 관계와 거주 기간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주자의 과밀 지각 정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거 적응 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가구의 주거 과밀 지각 현상은 인구 사회적 변인, 주거 환경 변인과 주거 경험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또한 이들 각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2) 주거 과밀 지각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V. 연구 방법

##### 1.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인 특성, 주거의 특성, 과거 주거 경험, 주거 과밀 지각 및 주거 적응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따른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족수에 관한 문항에 직접 답하게 하였으며, 가족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과 기타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분류에 근거하였고, 가정 생활 주기는 부부의 연령, 결혼 지속년수, 첫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유영주(1984)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주거 환경에 관한 문항에는 현재 주택의 유형, 규모, 소유 관계, 거주 기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고 가족수를 침실수로 나누어 방당 거주인 수를 계산하였다. 과거 주거 경험 문항에는 이전 주택의 유형, 규모, 소유 관계, 거주 기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주거 과밀 지각 문항은 거주 주택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른 과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과밀 지각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치를 표시하게 하였다. 주거 적응 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밀 주거에 대한 대응책을 주거 적응과 주거 조절로 구분하여 주거 적응 문항에는 대책 없이 거주하는 경우와 가족의 구조를 조절하는 경우를 포함 시키고 주거 조절 문항에서는 주택의 증축, 개축과 주거 이동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하여 이를 각각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로 표시하였다.

##### 2. 조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층적 무선 표집 방법을 택하였다. 연령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30명의 대상에게 면접과 질문지를 통하여 예비 조사를 한 후,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착수하였다.

본 조사는 1985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300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에게 배부하였고, 200부는 가정관리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계층과 연령을 고려한 표본 선정을 하도록 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일부는 면접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21부로 이들 중 응답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394부를 선정하였다.

#####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중 394부가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실태 분석에는 단순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 모형내의 각 변인과 주거 과밀 지각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계수를 구하고, 인구 사회적 변인, 주거 경험 변인, 주거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과밀 지각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끝으로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른 과밀 지각에 대한 주거 적응 행동의 집단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Breakdown을 하여 F검증을 하였다.

#### 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가 남자는 49.1%, 여자는 50.9%였으며 연령 분포는 20세 미만이 12.2%, 20대가 25.6%, 30대가 29.2%, 40대

표 1. 연구모형내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39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성별	-																	
2. 연령	-0.22***	-																
3. 가족의 동질성	-0.04	-0.01	-															
4. 가족생활주기	0.01	0.10*	-0.17***	-														
5. 가구주의 직업	0.17***	-0.22***	0.07	-0.08	-													
6. 가구주의 학력	0.13**	-0.21***	0.06	-0.20***	0.59***	-												
7. 월 평균 소득	0.17***	-0.09*	0.02	0.15**	0.46***	0.46***	-											
8. 이진주택유형	0.05	-0.12*	-0.07	-0.30***	-0.11*	-0.06	-0.17***	-										
9. 이진주택규모	0.11**	-0.08	-0.02	0.19***	0.30***	0.28***	0.43***	-0.30***	-									
10. 이진주택소유	-0.07	-0.01	-0.02	-0.28***	-0.28***	-0.23***	-0.28***	0.41***	-0.35***	-								
11. 이진주택거주기간	-0.07	0.08	0.05	0.27**	0.06	0.01	0.12**	-0.30***	0.12**	-0.30***	-							
12. 현재주택유형	0.01	0.01	-0.11*	-0.24***	-0.11*	-0.01	-0.19***	0.43***	-0.19***	0.18***	-0.17**	-						
13. 현재주택규모	0.12*	-0.64	0.16**	0.24***	0.35***	0.24***	0.43***	-0.26***	0.54***	-0.33***	0.23***	-0.46***	-					
14. 현재주택소유	-0.17***	0.03	-0.04	-0.21***	-0.21***	-0.19***	-0.30***	0.21***	-0.23***	0.39***	-0.13**	0.28***	-0.36***	-				
15. 현재주택거주기간	-0.05	0.04	0.14**	0.11*	-0.02	-0.02	0.15**	-0.14**	-0.01	-0.05	0.12**	-0.14**	0.08	-0.07	-			
16. 방 당 거주인수	-0.05	0.08	0.07	-0.04	-0.29***	-0.41***	-0.31***	0.17***	-0.32***	0.29***	-0.09*	0.15**	-0.40***	0.35***	-0.06	-		
17. 전체과밀지각	-0.05	0.00	0.02	-0.02	-0.20***	-0.21***	-0.16**	0.17***	-0.28***	0.19***	-0.04	0.22***	-0.48***	0.25***	0.05	0.48***	-	
평균	0.51	35.83	0.28	3.74	3.88	14.03	80.00	0.58	26.22	0.36	5.13	0.61	30.46	0.26	4.69	2.99	3.37	
표준편차	0.50	11.34	0.45	1.25	1.23	3.39	44.35	0.49	13.62	0.48	5.89	0.49	16.54	0.44	7.26	1.02	1.82	

※ 연구모형내의 명목 측정 변인들은 Dummy 회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음.

성별: 남 (0) 여 (1) 가족의 동질성: 핵가족 (0) 기타 (1) 이진주택유형: 단독주택 (0) 기타 (1) 이진주택소유: 소유 (0) 기타 (1)

현재주택유형: (0) 기타 (1) 현재주택소유: (0) 기타 (1)

\* P < 0.05      \*\* P < 0.01      \*\*\* P < 0.001



가 23.2%, 50세 이상이 9.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15.8%, 고등학교가 25.9%, 대학교가 11.6%, 대학원 이상이 16.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구주의 직업 분포는 전문직, 관리직이 31.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으로 28.9%, 자영업 상공업 및 서서비스직이 23.1%의 순으로 많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원 미만이 3.6%, 10~50만원이 35.8%, 50~90만원이 32.2%, 90~130만원이 17.8%, 130만원 이상이 10.7%로 대부분의 가정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율은 73.6%였고, 주택의 유형은 단독 주택이 39.3%를 차지하였다. 주택의 규모는 평균 30.46평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별 평균 가족수는 4.5명, 가족 형태는 조사 대상자의 69.0%가 핵가족으로 구성되었다.

## 2.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지 또는 평가 방법은 부분적인 해석 방법에 의한 평가 보다는 총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Bell, 1978). 전체적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에 사용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각 변인들의 상관 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적 변인으로는,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교육 수준, 가구주의 소득이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 노무자나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가구에 있어서 과밀 지각 수준은 낮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과밀 지각의 정도는 낮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성별이나 연령, 가족의 동질성등의 변인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의 과거 주거 경험에 관한 변인들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이전 주택의 유형이 단독 주택이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 더욱 주거 과밀 지각을 하며, 이전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더욱 과밀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에 관한 변인들중 주택 유형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더욱 과밀하게 느끼고,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방

당 거주인 수가 많을 수록 더욱 과밀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이전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위의 표 1은 실제로 두 변인간의 단순 상관 관계만을 나타내므로 이들 변인들은 함께 포함하는 모형으로 바꾸어 중회귀 분석을 할 경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한 것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는 주거 과밀 현상을 예시하는 인구 사회적 변인, 주거 경험 변인, 주거 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의 크기와 함께 표준화된 회귀 계수 (Beta)의 비교에 의한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과밀 지각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위의 세 범주의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회귀 모형에 단계적으로 각 범주의 변인들을 첨가시켜 변화를 검토하였다. 첫째 과정으로 종속 변인인 전체 과밀 지각에 대하여 독립 변인으로 인구 사회적 변인들, 즉 성별, 연령, 가족 구성의 동질성, 가구주의 직업, 학력, 소득의 변인들을 회귀 분석한 결과 종속 변인의 분산에 의한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중 특히 가구주의 학력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이는 부적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학력 수준이 낮을 수록 과밀 지각의 정도는 높아 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위의 결과로 보아 사회 인구적인 변인들이 주거 과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높지 않음이 밝혀졌다. 두번째의 과정으로 위의 회귀 모형에 과거 주거 경험 변인들을 첨가하여 종속 변인, 즉 전체 주거 과밀 지각에 나타나는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과거 주거 경험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함께 포함시키는 회귀 모형에서는 이전 주택의 규모가  $P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 $\beta = -0.220$ ), 이는 이전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과밀 지각의 정도는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첫 번째 회귀 모형에서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던 가구주의 학력은 유의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두 범주를 포함하는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과거 주거 경험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10.8%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주거 경험이 개인의 주거 과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과거 주거 경험을 나타내는 변인, 주거 환경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회귀식을 구성하여 각각의 변인들의 중요도와 설명력을 살펴 보았다. 세범주에 속하는 16가지의 변인들중  $P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인은 현재 주택의 규모와 방당 거주인

표 2. 주거과밀 지각에 대한 제 범인의 회귀계수 및 설명력 비교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B	β	B	β
	B	β	B	β	B						
인성	-0.038	-0.023	-0.026	-0.016	-0.007	-0.005					
구연	-0.004	-0.055	-0.004	-0.062	-0.004	-0.061					
사족	0.058	0.032	0.087	0.049	0.176 *	0.098					
회생	0.022	0.033	0.020	0.031	0.058	0.090					
적활	0.079	0.118	-0.031	-0.047	0.020	0.030					
번의	-0.101 *	-0.132	-0.071	-0.094	0.002	0.002					
인학	-0.018	-0.050	0.018	0.048	0.043 *	0.116					
주거			0.065	0.095	0.038	0.055					
경택			-0.013 ***	-0.220	-0.981	-0.017					
합범			0.039	0.031	-0.047	-0.036					
인인			0.001	0.011	0.007	0.055					
주거					0.003	0.005					
환경					-0.021 ***	-0.428					
변인					0.075	0.050					
					0.003	0.026					
					0.003 ***	0.296					
회귀	4.343			3.880		2.928					
상수	0.061			0.108		0.331					
R <sup>2</sup>											

t - value 검증 \* p < 0.05 \*\* p < 0.01 \*\*\* p < 0.001

수로 나타났으며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인으로는 가족의 동질성과 월평균 소득입이 밝혀졌다. 유의적인 변인들중 그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준화된 회귀 계수로 비교해 보면 현재 주택의 규모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 $\beta = -0.428$ ), 방당 거주인 수 ( $\beta = 0.296$ )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두번째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과거 주거 경험을 나타내는 변인들로 구성된 회귀 모형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던 가구주의 학력과 이전 주택의 규모는 그 유의성이 소멸되고 대신 가족의 동질성과 월평균 소득이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유의적인 변인들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가구주의 학력 또는 이전 주택의 규모와 같은 변인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과밀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소득이나 현재 주택의 규모들과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과밀 지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주거 경험, 주거 환경 변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회귀 모형에서 종속 변인, 즉 주거 과밀 지각 정도의 설명력은 33.1%로,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주거 경험 변인들을 포함하는 이전 모형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물리적 주거 환경 변인은 주거 과밀 지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거 과밀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거 환경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특히 주택의 규모와 방당 거주인 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방당 거주인 수가 많을수록 과밀 지각의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규모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Rohe (1982), Aiello 팀(1982) 및 Desor(1972)의 연구등에서 방당 거주인 수가 가장 유의적인 변인으로 보고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 과밀 현상은 방의 수의 부족보다는 절대 면적의 부족에 깊이 기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사회적 변인중 주거 과밀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가족의 동질성과 가구의 소득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구성이 핵가족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질때 과밀 지각의 정도는 낮게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Rohe (1972)의 경험적 연구에서 핵가족일 경우 밀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과 비교할 때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Rohe는 그의 연구에서 가족 구성이 핵가족일 경우라 해도 구성원의 흥미나 생활

양식이 다를 경우 더욱 과밀을 느끼게 되며 특히 가족이 함께 생활할 경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므로 더욱 과밀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끼리의 생활은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과 비교할 때 이러한 과밀 지각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하였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등을 통제할 경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과밀 지각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에 과밀 지각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가지는 주거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르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상림 (198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개인의 과거 주거 경험에 대한 변인들은 직접적인 주거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으나 이전 주택의 규모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임이 파악되었다. 즉 과거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거 과밀 지각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Helson의 적응 수준 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절대 면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므로 현재 주택과의 비교를 통한 변인들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 3.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중 주거 과밀 지각을 하는 표본(N=155)만을 대상으로 적응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적응 방법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가족 구성원내의 조절 방법을 택하는 경우, 주택을 증축, 개축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그리고 주거 이동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책이 없는 경우와 가족 내부에서의 조절 방법을 택하는 경우는 적응 행동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주택의 개선이나 주거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는 주거 조절 행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

통계 처리 방법은 Breakdow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미있게 나타난 변인들은 표 3과 같다. 인구 사회적 변인중 성별, 연령, 가족 구성, 가구주의 직업, 교육 정도, 소득의 변인들이 검토되었으며 주거 조절 행동과 유의적인 변인들로는 성별, 연령, 가구주의 직업, 소득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과밀에 대한 주거 적응 행동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

표 3. 주거적응행동의 집단간 차이검증

(N=155)

변 수	집 단	빈 도 (%)	평 균	표 준 편 차	F 값
성 별	남	51.6	2.638	1.362	5.021 *
	여	48.4	3.107	1.237	
	합 계	100.0			
연 령	20 세 미 만	12.9	2.650	1.349	3.149 *
	20 ~ 29 세	25.2	3.256	1.094	
	30 ~ 39 세	29.0	3.133	1.307	
	40 ~ 49 세	26.5	2.439	1.379	
	50 세 미 상	6.5	2.300	1.338	
	합 계	100.0			
가 구 구 성	핵 가 족	69.0	2.888	1.327	0.107
	기 타	31.0	2.813	1.315	
	합 계	100.0			
가 구 주 의 직 업	단 순 노 무 자	9.7	1.600	1.121	4.759 ***
	피 고 용 기 능 공	10.3	3.125	1.258	
	자 영 상 공 업	20.6	2.563	1.366	
	사 무 기 술 직	24.5	3.000	1.295	
	전 문 관 리 직	31.0	3.167	1.209	
	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최고위관리	3.9	3.667	0.516	
	합 계	100.0			
가 구 주 의 교육정도	국 민 학 교	10.3	2.313	1.353	1.989
	중 학 교	11.0	2.353	1.367	
	고 등 학 교	28.4	2.886	1.333	
	대 학 교	35.5	3.018	1.284	
	대 학 원 이 상	14.8	3.217	1.204	
	합 계	100.0			
가 구 주 의 월평균소득	10 만 원 미 만	7.1	1.273	0.905	5.906 ***
	10 ~ 49 원	38.1	2.831	1.315	
	50 ~ 89 원	29.7	2.957	1.316	
	90 ~ 129 원	16.1	3.080	1.222	
	130 만 원 이 상	9.0	3.571	0.852	
	합 계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더욱 주거 개선 또는 이동 성향을 보여 여자들의 경우에 더욱 주거 조절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위의 결과는 과밀 지각 현상에 있어서 성별의 뚜렷한 차이가 없었음과 비교해 볼 때

적응 행동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의 차이는 20대와 30대에서 적극적인 주거 조절 행동 경향을 보이며, 40대와 50대의 경우는 주거 이동을 통한 조절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비이동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구성 형태에 따른 차이, 즉 핵가족일 경우와 직계 가족 이외의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경우에 있어 적응 행동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적응 행동의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고, 특히 단순 노무자의 경우는 적극적인 조절 행동보다는 대책이 없이 과밀한 주거 상태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가족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피고용 기능공에 있어서는 단순 노무자 보다는 적극적 조절 방법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문직, 관리직 또는 기업주나 자본가의 가구에 있어서 점차 적극적인 주택의 개선이나 주거 이동 성향은 높아지고 있다.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주거 적응 행동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소득정도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의 차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대처 방안이 없이 또는 가족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적응 행동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 수록 주택을 개선하는 방법 또는 주거 이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거 과밀에 대한 적응행동은 성별에 있어서 여자인 경우, 연령층은 30대와 40대에서, 가구주의 직업은 단순 노무자나 자영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전문 관리직이나 기업주, 자본가등이 더욱 과밀 지각 현상에 대처하는 주거 조절 행동에 적극적인 적응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소득 정도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의 변화는 극히 뚜렷하였으며, 위의 결과로 보아 과밀 주거에 대한 주거 적응 행동은 주거 욕구 변화나 가족 구성이 동질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에 느끼는 과밀 현상에 따른 적응의 필요에 의하기 보다는 소득의 기능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소득의 기능은 직업에 따른 소득의 격차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가구들의 상당 비율이 과밀 지각을 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응행동을 하는 데에는 제한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특히 주거 적응 행동을 실행하는 것은 소득의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어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 적응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Ⅶ.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가구들이 그들의 환경 조건 즉 부족한 주거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응 행동을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거 과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주

거 환경 변인들과 개인의 주거 경험, 그리고 인구 사회적 변인들을 선정하여 객관적 지표로 하고 이러한 변인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과밀 지각 정도를 주관적 지표로 하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과밀 지각에 따른 주거 적응 행동이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가구의 주거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인구 사회적 변인들과 개인의 주거 경험 변인들의 설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이 파악되었다. 반면 주거 환경 변인은 주거 과밀 지각을 예측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둘째, 주거 환경 변인들중 주택의 규모는 주거 과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방당 거주인 수도 과밀 지각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가족의 동질성과 소득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시켰을 때 주거 과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핵가족일 경우 과밀 지각 정도는 낮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과밀 지각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그들의 현재 주거 수준을 기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인지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넷째, 주거 과밀 지각에 따른 적응 행동은 성별, 연령, 가구주의 직업, 소득등과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냈다. 이들 변인들중 소득과 직업은 주거 적응 행동과 가장 유의적인 변인임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소득이 적을수록 과밀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이 지내거나 가족수를 조절하는 적응 행동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 수록 주택을 개선하거나 주거 이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 가구에 있어서 주거 과밀 지각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물리적인 주거 환경이 과밀 지각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변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주택의 절대 규모와 방당 거주인 수는 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연구에서 객관적인 주거 환경 조건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과밀 주거에 대한 주거 적응 행동은 과밀 지각 정도에 따른 적응의 요구 수준에 의하기 보다는 소득의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시 가구중의 상당 비율이 과밀 지각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응 행동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의 가구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거 과밀 지각을 설명하는 변인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들만을 포함시킨 의도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의 범위를 확대시켜 포괄적인 모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 과밀 지각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체적 평가 방법을 택하여 과밀 현상을 설명하는 다각적인 조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과밀 지각에 대한 세분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과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개인과 가정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주거 과밀 효과에 대한 일련의 분석적 연구도 필요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도시 가구들이 왜 과밀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응 행동을 하며, 또 적응 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의 과밀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도시 가구들이 부족한 주거 공간 자원 사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절하며 통제하여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에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문숙재·소연경: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3, 1: p43~53
- 2) 유영주: 한국 도시 가족의 생활 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4 제1 권 제1 호 p111~129
- 3)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 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4, 2(2): p35~59
- 4) 차성관: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5) 최상림: 아파트 거주민의 주거 과밀 지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6)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 「한국 표준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정책연구, 1983,

제5 권 제3 호 p69~83

- 7) 홍성희: 주거 가치관에 따른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8) Aiello JR & Gormley FP: *Social Dens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sidential Crowding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82, 12: 3 p222~236*
- 9) Altman I and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alif: Brooks\ Cole Publishing Co, 1980*
- 10) Bell PA & Fisher JD and Loomis RJ: *Environmental Psych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78, p22*
- 11) Booth Alan & Edwards JN: *Crowding and Family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6, Vol 41. p308~231*
- 12) Cassel John: *Health Consequences of Population Density and Crowding. In Robert Gutman(Ed). People and Building. New York: Basic Books. 1972, p249~268*
- 13) Desor JA: *Toward a Psychological Theory of Crow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2, Vol 21, No 1. p79~83*
- 14) Edney JJ: *Theories of Human Crowding: A review, Environment and Planning A, 1977, Vol 9. p1211~1232*
- 15) Freedman JL: *Crowding and Behavior. San Francisco: WH Freedman 1975, Bell PA et al: Environmental Psych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78, p212 재이용*
- 16) Gove WR, Hughes M & Galle OR: *Overcrowding in the H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ts Possible Pathological Consequ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9, Vol 44, p59~80*
- 17) Hall ET: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Anchor Books. 1966*
- 18) Holahan CJ: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1982*
- 19) Karlin RA, Epstein YM & Aiello JR: *A Setting Specific Analysis of Crowding. In A Ba-*

- um & Y Epstein (Eds) *Human Response to Crowd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9
- 20) McAuley WJ and Nutty C : *Residential Preferences and Moving Behavior: A Family Life-cycl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82, p301~309
- 21) Melson GE : *Family and Environment: An Ecosystem Perspective*. Mineapolis, Minnesota : Burgess Publishing Co. 1980
- 22) Micklin M(ed) ; *Population, Environment and Social Organization: Current issue in Human Ecology*. Hinsdale, Ill : Dryden press, 1973. Holahan CJ: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Random House, 1982, p221 재인용
- 23) Milgram S : *The Experience of Living in Cities*. *Science*, 1970 167. p1461-1468
- 24) Morris EW, Crull SR and Winter M : *Housing Norms, housing satisfaction and propensity to Mo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7. Vol 38. p309-320
- 25) Morris EW & Winter M :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8
- 26) Proshansky HM, Ittelson WH and Rivlin LG : *Freedom of choice and behavior in a physical setting*. In HM Proshansky et al(Eds) . *Environmental Psychology: People and their physical setting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6
- 27) Rapoport Amos : *The Ecology of Housing*. In BM Morrison & K Natrass(Eds). *Human Needs in Housing*,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5. p57-63
- 28) Rapoport Amos : *Toward a redefinition of density*. In. S. Saeger(Ed). *crowding in real environments*, Beverly Hills, Calif: Sage, 1976. NW Heimstra, *Environmental Psychology* 2nd Ed. Monterey, Calif: Brooks / Cole Publishing Co., 1978. p183에서 재인용
- 29) Rohe WM : *The Response to Density in Residential Setting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d Personal Variab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2. 1982, p292-303
- 30) Seek NH : *Adjusting Housing Consumption: Improve or Move*, *Urban Studies*, Vol 20, 1983 p455-469
- 31) Stokols D : *The Experience of crowding in Primary and Secondary Environments*. *Environment and Behavior*. 1976, 8(1) : p49-89
- 32) Stokols D : *On the distinction between density and crowding: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1972, 79, p275-278
- 33) Wicker AW and Mehler A : *Assimilation of new members in a large or small church grou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77, 55, p151-156
- 34) Wirth Louis : *Urbanism as a way of Life*, In L Wirth(Ed). *On Cities and Social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60-83. first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38, 44 p1-24
- 35) Wohlwill JF : *The Physical Environment: A problem for a Psychology of Stimulation*. In Robert Gutman(Ed). *People and Building*, New York : Basic Books, 1972